

순천중앙초, 전남교육감기 축구 우승



한국 초등학교 축구의 최고 명문팀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순천중앙초등학교(교장 김동언) 축구부가 최근 강진에서 열린 제 47회 전라남도 교육감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순천중앙초등학교 축구부는 김동언 교장의 헌신적인 축구의 사랑과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강진 공설 운동장에서 열린 전라남도 교육감기 대회 결승에서 해남 동초등학교를 2:0으로 완파하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중앙초 축구부는 올해 4월 일본 효고현에서 열렸던 일본 축구의 전성 기마모토컵을 한국대표팀으로 참가하여 우승을 하여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의 위상을 높였으며 8월에 경주에서 화랑대기 전국 대회에 3위 그리고 이번 교육감기

대회에서 우승 축구 명문팀의 전통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중앙초등학교 축구부 출신 선수들을 살펴보면 기성용(영국뉴캐슬), 허용준, 한찬희, 이슬찬, 박대환, 신진하(이상전남드래곤즈), 이종호(울산현대), 김영광, 조용태(서울랜드), 박준강(부산아이파크), 김동준(성남FC), 이한샘(아산무궁화), 김민호(수원삼성), 김찬희(대전시지존), 김민호(리건, 시간도스) 등 전·현직 각급 대표선수를 대거 배출한 축구 명문학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정한균 감독은 국내 최초로 한 학교에서 한 지도자가 35년 동안 최장수 감독으로 전무후무한 109개 대회에서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정한균 감독은 순천중앙초등학교에서 지도자로 일생을 바친 정 감독과 순천중앙초등학교의 인연

결승서 해남동초 완파 '축구 명문' 명성이어 정한균 감독, 국내 최초 35년 최장수 감독 화제

은 우연이 아니었다.

당시 한국전력지점이 전국에 46개가 있었는데 46명을 합격시켜 전국 각 지점에 1명씩 발령내고 학교 교사들보다 높은 연봉과 함께 연 1천만원이라는 육성지원금(당시는 큰 액수의 돈이었음) 전국에 한전지점별 46개 학교를 선정 지원하는데 산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그해 12월 46명의 합격 지도자를 수안보 한전 생활관에 불러 모아 논산 훈련소 못지않은 정신교육, 교정방법, 스포츠 과학, 영양학, 스포츠 심리학 등 내로라하는 유명한 박사님들을 초빙 3주간 일차씩 습득하던 것이 알찬 교육 속에 FIFA 강사인 독일 출신의 조골 강사를 한전에서 초빙시킨 축구지도 방법을 알차게 습득하였던 것이 지금도 큰 자산으로 남아 있다.

이때의 교육이 국내·외 유럽 등 어느 교육 못지않은 알찬 교육으로 남았다고 회상하면서 유현철 당시 한국전력 감독님의 강의 시간 때에는 선수들 처벌하지 말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기초기술에 최선을 다하여 체력 훈련을 불과 함

게 시키라는 세뇌교육을 많이 받아 지금도 지도하는데 실천으로 옮기고 있으며 지도 재산이 되었다.

46명의 공개채용 지도자 중 현재 마산 합성초 강사기 감독님과 2명이 남아서 젊은 지도자들 못지않게 환갑 나이가 넘은 것을 잊고 우정을 다지며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

특히 기성용 선수는 모교(순천중앙초) 후배들에게 나이키 유니폼을 연 200벌씩(2000만원 상당)을 12년째 지원해주고 있으며 리무진 최신형 2억 상당의 버스는 기성용 선수와 순천중앙초 출신 프로 선수들의 후원으로 프로팀 못지않은 최고급 축구부 전용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과 전국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것 같다.

한편 정감독은 1급 축구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 한국유소년 축구연맹 부회장 전남 축구협회 부회장으로써,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수차례 교육감 표창 순천시민상(역대 체육인 1명 수상)을 수상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류현진, 내일 콜로라도전 선발 출격

시즌 5승 사냥 나서

LA 다저스의 류현진(31)이 시즌 5승 사냥에 나선다.

14일(한국시간)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류현진이 오는 18일 오전 11시 10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 선발 등판한다고 밝혔다.

로스 스트리플링이 17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원정경기 등판한 뒤 류현진이 18일 출격한다. 당초 18일 등판이 예상됐던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부상에서 이탈하며 류현진은 올해 부상에 시달리며 12경기에 선발 등판해 4승 3패 평

군지책점 2.42를 기록했다. 최근 2경기에서 수비와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모두 패전투수가 됐다.

올 시즌 류현진의 콜로라도전 등판은 처음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타자는 볼란 아레나도다. 아레나도는 류현진을 상대로 16타수 10안타로 천적의 면모를 보여줬다. 10안타 중 홈런이 3개, 2루타가 3개였다. 장타 6개가 모두 지난해 때려낸 것이다. 아레나도는 올 시즌 0.301의 타율에 34홈런 100타점을 기록한 강타자다.

카를로스 곤잘레스도 류현진을 상대로 13타수 5안타(1홈런)로 강했다.

뉴시스

안병훈, 2년연속 골프월드컵 한국대표...파트너는 김시우

각국 세계랭킹 높은 순서대로 1차 선발 자격 주어져



안병훈(27·CJ대한통운)이 ISPS 한다 멜버른 월드컵 오브 골프에 다시 한 번 출전 명예 회복을 노린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4일(한국시간) 안병훈이 지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으로 한국을 대표해 골프 월드컵에 출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병훈을 비롯해 28개국 1차 선발 선수들이 참가를 결정했다.

골프 월드컵 출전 선수는 각국에서 세계랭킹이 높은 순서대로 1차 선발 자격이 주어지고 그 선수들이 참가를 1차로 확정 후 자신들과 팀을 이룰 선수를 선정하는 순서로 결정된다.

한국은 안병훈이 세계랭킹 46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안병훈은 함께 할 파트너로 후배 김시우(23·CJ대한통운)를 선택했

다. 김시우는 세계랭킹 51위로 안병훈에 이어 한국 선수 중 두 번째로 세계랭킹이 높다.

안병훈은 "야마 김시우와 나갈 것 같다. 나 다음으로 한국 선수 중 세계랭킹이 높기도 하고 연습 리운도도 많이 해봐서 호흡은 잘 맞는다"고 설명했다.

28개국 56명의 출전 선수 명단은 21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안병훈은 2016년 김경태와 짝을 이뤄 출전한 대회에서 공동 22위의 성적을 올린 바 있다. 역대 대회에서 한국은 1971년과 1982년에 5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다.

올해 50회째를 맞이하는 ISPS 한다 멜버른 월드컵 오브 골프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더 메트로폴리탄 골프 클럽에서 열린다. 공식 세계골프 랭킹을 기준으로 상위 28개 국가의 선수들이 두 명씩 팀을 이뤄 진행된다. 이번 대회 상금은 호주에서 열리는 골프 대회 중 가장 많은 700만달러다.

강백호, 고졸 신인 최다 홈런 신기록

대졸 통틀어 신인 최다 1996년 박재홍 30홈런에 도전

KT 위즈의 '슈퍼 투키' 강백호(19)가 고졸 신인 최다 홈런 신기록을 작성했다.

강백호는 1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6회말 솔로 홈런포를 가동했다.

1-6으로 끌려가던 6회말 선두타자로 등장한 강백호는 삼성 선발 백정현의 2구째 직구를 받아쳐 중월 솔로 홈런을 날렸다.

비거리 130m짜리 대형 홈런으로 신기록을 작성했다. 강백호는 1994년 21홈런을 친 LG 트윈스의 이재현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제 강백호는 박재홍의 기록에 도전한다. 대졸까지 통틀어 신인 최다 홈런은 1996년 박재홍이 기록한 30홈런이다.

개막 후 7경기에 4개의 홈런을 몰아쳐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강백



호는 올해 6, 7월에 10개의 홈런을 몰아쳤다. 8월부터 홈런포가 주춤했지만, 최근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려 시즌 30홈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뉴시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심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마을,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패야굴,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